

## 高麗中期的 軍職 ‘指諭’와 ‘行首’

김낙진\*

1. 머리말
2. 指諭와 行首의 설치
3. 指諭와 行首의 기능과 임무
4. 指諭와 行首의 임명
5. 맺음말

### 1. 머리말

指諭와 行首는 사료상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지만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지유와 행수는 문반이나 무반의 품관직이 아니었으며 주로 특수한 분야에 두어졌던 보직이었다. 숙종대 윤관의 건의로 만들어진 별무반의 구성부대에 조직되어 있었고, 견룡군, 중금군, 내순검군, 도지군, 백갑군 등 금군과 최우가 만들었다고 하는 야별초에도 지유와 행수가 편제되어 있었다. 반면에 2군 6위의 중앙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指諭와 行首는 중앙군과

\*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다른 특수부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고려묘지명』 등에는 지유와 행수를 역임한 인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특기할 점은 指諭와 行首 관련 자료가 숙종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별무반에 지유의 직책이 있는 것이 가장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그 이전에 아예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 나타나는 자료에는 그렇다는 것이다. 지유와 행수가 사료상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은 인종대부터 의종대, 명종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씨정권기를 비롯하여 무인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야별초 등에 그 직책이 보이고 있으며, 고려 후기 近侍로 보이는 보마배 등에도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2군 6위의 중앙군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직책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6위 그 가운데서 전투부대로서의 임무를 맡은 좌우위, 신호위, 홍위위의 3위가 약화되자 별무반이 조직되었다.<sup>2)</sup> 별무반은 윤관이 여진과의 싸움에서 패한 뒤 적은 기병이고 아군은 보병이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을 비롯하여 각종 특수병들을 조직하여 만든 것이다. 여기에 도령-지유 등의 직책이 보이고 있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시위 임무를 맡은 2군의 약화도 수반되었는데, 이들의 역할을 대체하는 견룡군 등 禁軍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3)</sup> 특히 의종대와 명종대는 2군보다는 금군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이렇게 중앙군이 부실화 되고 이를 대신하여 금군, 별무반, 야별초 등이 조직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대에 指諭와 行首가 설치되었다. 금군이나 별무반, 야별초 등은 중앙군과

1) 『고려사』 권81, 지35 병1 병제 五軍條에 보면 五兵都指諭나 左右梗弓指諭, 左右精弩指諭, 神步·石投·大角·鐵水·發火·跳盪·剛弩 등에도 都領과 指諭가 설치되어 있다.

2) 이기백, 「고려 별무반고」, 『김재원박사희갑기념논총』, 1969; 『고려귀족사회의 형성』, 1990을 참고하라.

3) 김낙진, 「견룡군과 무신란」, 『고려무인정권연구』, 서강대 출판부, 1995, 13쪽.

별도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 똑 같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유와 행수의 직책은 금군이나 별무반, 야별초 등 그 운영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려 군제의 변화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유와 행수는 이기백의 『고려사병지역주(1)』에서 처음 설명이 이루어진 뒤에 별달리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sup>4)</sup> 그 후 견룡군 등 禁軍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指諭와 行首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언급하였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지유와 행수의 성격과 임무, 조직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독립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유와 행수가 어느 조직에 설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유와 행수의 관계,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단위부대의 지휘관이었는지, 지유와 행수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나 선발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指諭와 行首의 설치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고려묘지명』 등에는 行首나 指諭의 직책이 자주 보인다. 이들은 무반의 품관직은 아니었으며 특수한 조직에

4) 이기백은 『고려사 병지 역주(1)』 1969, 경인문화사, 110쪽에서 행수유사에 대한 설명에서 각사의 행수가 되는 관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419쪽의 주)302에서 행수를 행군 중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 행수와 지유에 대한 분석적 설명은 없다.

5) 김당택, 「무인정권시대의 군제」, 『고려군제사』, 육군본부, 1983.  
송인주, 『고려시대 금군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1997; 『고려시대 친위군 연구』, 일조각, 2007.

김낙진, 「고려시대 금군의 조직과 성격」, 『국사관논총』 106, 국사편찬위원회, 2005.

설치되었던 직책이었다. 지유와 행수는 주로 의종대부터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무인집권기에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指諭와 行首의 용어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武班에 대한 연구는<sup>6)</sup> 비교적 자세히 되어 있으나 指諭나 行首의 실체는 자세하지 않다. 직위는 높아보이지는 않으나 금군이나 야별초 등 중요한 군사조직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은 중요해 보인다.

먼저 指諭와 行首의 직책이 어느 조직에 설치되어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지유와 행수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禁軍이다. 금군에는 견룡군을 비롯하여 중금군, 순검군, 내순검군, 도지군, 백갑군 등이 있었다.<sup>7)</sup> 이러한 부대들에는 지유와 행수의 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아래의 사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A-①왕이 和平齋로 행차했는데 또 측근의 총애하는 문신들과 함께 돌아가기를 잊은 채 계속 술을 마시고 시를 읊으니 호종한 장병들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다. 정중부가 소변을 보려고 나가자 牽龍行首인 散員 李義方과 李高가 뒤따랐다.(『고려사』 권128, 열전41 정중부전)

-②東宮의 牽龍指諭에 결원이 생기자 樞密院副使 曹元正이 자기 아들로 보충하고자 하여 대궐로 가서 청하였다.(『고려사절요』 권13, 명종 15년 정월)

6) 무반에 관한 연구는 아래의 것이 대표적이다. 이 이외에도 논문 속에서 무반은 언급한 것은 많으나 제목에서 무반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변태섭, 「고려조의 문반과 무반」, 『사학연구』 11, 1961;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90.

----, 「고려 무반연구」, 『아세아연구』 8, 1965;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90.

박용운, 「고려전기 문반과 무반의 신분문제」, 『한국사연구』 21, 1978.

이진한, 「고려시대 무반직의 지위와 구성」, 『군사』 37, 1998.

김보광, 「고려시대 견룡의 운영과 무반관직」, 『역사교육』 117, 2011.

김중수, 「고려시대의 문반과 군반」, 『한국사연구』 164, 2014.

에드워드 슐츠, 김범 역, 『무신과 문신』, 글항아리, 2014.

이정훈, 「고려후기 개반-문·무반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45, 2016.

7) 송인주, 「고려시대의 금군」, 『한국중세사연구』 3, 1996, 107~115쪽; 『고려시대 친위군 연구』, 일조각, 2007, 57~80쪽.

김낙진, 「고려시대 금군의 조직과 성격」, 『국사관논총』 106, 2005, 167~170쪽.

-③명종 초에 다시 散員으로 옮겼는데 李義方이 그의 이름을 듣고 불러다가 內巡檢軍指諭로 삼았다.(『고려사』 권100, 두경승전)

-④元宗이 기뻐하며 발탁해 御牽龍行首로 삼았다. 中禁指諭까지 되었으나, 그의 어머니가 천하였기 때문에 관직은 3품으로 한정되었다.(『고려사』 권 124, 열전37 윤수 부 송화전)

-⑤都陳班은 영지유가 2명<의복과 차고 있는 것은 中禁指諭와 같다>, 행수가 2명<의복은 中禁行首와 같다>, 반사가 10명이다<방각을 쓰고 자의를 입고 띠를 두르며 黑簪紅羅號의 斫子를 잡는다>. (『고려사』 권72, 지26 여복1 의위 법가의 의장)

-⑥右白甲指諭 孫公呂를 섬으로 유배 보냈다. 손공려가 일찍이 逆賊에게 투항해서는 왕에게 매우 불손하게 말을 하였는데, 외람되게 이 직책을 받자 재추들이 아뢰어 유배 보낸 것이다.(『고려사』 권30, 충렬왕 11년 2월 을묘)

위의 A 사료들을 통하여 보면 “견룡행수”, “견룡지유”, “내순검군지유”, “중금행수”, “중금지유”, “우백갑지유” 등의 용어가 보이고 있다. A-①은 무신란의 주역으로 알려진 이이방과 이고가 당시 견룡행수직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사료이다. 그들은 무반의 정8품관인 散員으로 견룡군의 행수직에 보임되어 있었다. A-②의 사료는 조원정이 동궁의 견룡지유 자리가 비자 자신의 아들을 임명하려고 왕에게 청탁하려는 내용이다. 이 기록에서 동궁 즉 태자부에 견룡군이 배치되어 있었고, 여기에 ‘지유’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③은 杜景升이 이이방에 의해 內巡檢軍指諭에 임명된 사례이다. 내순검군은 의종 21년에 발생한 유시사건을 계기로 의종이 부병 가운데 효율한 자들을 선발하여 만든 부대였다. 이들은 양변으로 나누었고 항상 자색 옷을 입고 궁검을 가지고 의장 밖에 나누어 서서 비와 눈도 피하지 않고 밤이면 순경하여 아침까지 이르렀다고 한다.<sup>8)</sup>

內巡檢軍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순검군도 존재하고 있었다.<sup>9)</sup>

8) 屯府兵于闕庭 以備不測 自是 選取驍勇者 號內巡檢 分爲兩番 常着紫衣·持弓劍 分立仗外 不避雨雪 夜則巡警達曙(『高麗史』 권82, 지35 병2 숙위 의종 21년 정월)

9) 순검군에 관한 가장 앞선 기록은 인종 4년 4월 이자겸의 난이 벌어졌을 때 巡檢

이 巡檢軍에도 순검지유가 설치되어 있었다. 의종 21년에 있었던 유시사건에서 호위를 근면이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견룡 및 순검지유 14인이 유배되었던 적이 있었다.<sup>10)</sup> 여기서 견룡군과 순검군에 각각 指諭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④는 중금지유의 사례로 원종 때 宋和가 임금에 의해 어견룡행수로 발탁되었다가 중금지유로 승진하였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가 중금지유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중금군에 지유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실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⑤의 사료는 의종조에 상정된 의위조의 법가의 의장에 대한 규정인데, 도지반의 영지유와 행수에 대한 규정을 中禁指諭·中禁行首와 같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중금군에 지유와 행수의 직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재차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의종 때 박순필이 중금군으로 호위를 맡았었고, 명종이 즉위하자 좌중금지유로 승진하였다고 한다.<sup>11)</sup> 중금군이 左中禁과 右中禁으로 구분되어 있었고,<sup>12)</sup> 좌·우에 각각 指諭가 설치되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都知軍에도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었음도 앞서 언급했던 A-⑤의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서 도지군의 지유와 행수를 中禁軍의 규정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기록 이외에도 『고려사』 권80, 식화 3 녹봉 잡별사조의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별사 규정을 보면 米 10석은 左番中禁行首, 右番中禁行首, 左番都知行首, 右番都知行首가

都領 鄭惟晃이 이자겸의 당인 少卿 柳元湜을 죽이는 내용에서 순검군의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절요』 권9, 인종 4년 4월조)

10) 왕이 봉은사에 갔다가 돌아오다 관풍루 쪽 이르렀을 때 좌승선이었던 김돈중이 탄 말이 놀라면서 옆의 한 騎士가 탄 말에 달린 화살통에 부딪쳐 그 안에 담겼던 화살이 튀어나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의종은 이것이 외부에서 날아 온 것인 줄 알고 호위의 책임을 물어 견룡군과 순검군 지유 14인을 유배 보낸 사건이다.

11) 『고려사』 권100, 열전13 박순필.

12) 金元義가 의종 24년 무신란이 일어나고 명종이 候邸에서 왕위에 오를 때 그가 右中禁으로써 왕을 수행하여 그 공로로 발탁되어 隊校가 되었다고 한다(『김용선 편, 「김원의묘지명」, 『(제5판)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 출판부, 2012, 316쪽). 김원의가 右中禁이었다는 데서 左中禁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중금군 뿐만 아니라 도지군이 좌·우 번으로 나뉘었으며 각각 左·右行首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금군의 구성부대였던 白甲軍에도 지유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사료 A-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손공려가 일찍이 역적에게 투항하였을 때 왕에게 매우 불손하게 하였는데도 우백갑지유의 직책을 받게 되자 재추들이 건의하여 유배 보냈다고 하는 내용이다. 손공려가 받은 직책이 右白甲指諭라고 한데서 백갑군이 좌백갑군과 우백갑군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며, 각각 좌백갑지유와 우백갑지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指諭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과 다른 금군의 경우 지유와 행수가 있었던 점에서 볼 때 백갑군도 行首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한편 고려후기의 기록이지만 공민왕이 보우를 왕사로 봉하고 원용부를 설치하여 관속을 배치했을 때 左右寶馬陪 指諭와 行首를 두었다고 한다.<sup>13)</sup> 즉 左寶馬陪 指諭와 行首, 右寶馬陪 指諭와 行首를 두었다는 의미이다. 寶馬陪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近侍의 임무를 수행하는 관속이라고 생각된다. 조준이 공민왕에 의해 보마배지유에 임명된 예도 있다.<sup>14)</sup> 그리고 권렴이 별장으로 보마배행수에 임명된 사례도 있다.<sup>15)</sup>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건릉군, 중금군, 내순검군, 순검군, 도지군, 백갑군, 보마배 등에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좌우 편제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禁軍 내에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태자부나 왕비, 그리고 제왕자의 府에도 그것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를 참고해 보자.

B-①諸妃主府. 무릇 妃와 主를 책봉하면 반드시 殿을 세우고 府를 두면서 僚屬을 갖추었다. 文宗 때에 관제를 정하였는데……忠烈王 때에 부에 승 1인,

13) 본문의 사료 B-4를 참고하라.

14) 『고려사』 권118, 열전31 조준.

15) 김용선편저, 『權廉墓誌銘』, 『고려묘지명집성(제5판)』, 한림대 출판부, 2012, 511쪽.

指諭와 行首 각각 2인씩, 牽龍 4인, 侍衛軍 50인, 守護員 2인을 두었으며, 전에는 書題 2인을 두었다.(『고려사』 권77, 지31 백관 2 제비주부)

-②(송)유인은 인종 때 그의 아버지가 사직을 지키다가 죽은 공으로 散員에 임명되었고, 조금 뒤에 太子府指諭가 되었다가 衛將軍으로 임명되었다.(『고려사』 권128, 열전41 정중부 부 송유인)

-③東宮의 牽龍指諭에 결원이 생기자 樞密院副使 曹元正이 자기 아들로 보충하고자 하여 대궐로 가서 청하였다.(『고려사절요』 권13, 명종 15년 정월)

-④병오년에 대오의 장에 충원되었고, 다시 들어와 태자부견룡이 되었다. 대□로부터 계급이 오장으로 올랐으며, 몇 년 안 되어 다시 들어와 견룡행수에 보임되었으며 御牽龍行首로 옮겼고 지유에 이르렀다.(『고려묘지명집성』, 김취려 묘지명)

-⑤普愚를 王師로 봉하고 府를 설치하여 이르기를 圓融이라고 하였고, 左右司·尹·丞·舍人·注簿·左右寶馬陪 指諭·行首의 官屬을 두었다.(『고려사』 권39, 공민왕 5년 4월)

-⑥충렬왕이 일찍이 帝女齊國公主를 위해 특별히 膺善府를 세웠고 옮겨 응선부 牽龍行首가 되었으며, 左右衛郎將에 배수되었다가 右指諭로 전임되었으며 이어 차흥위위장군이 되었다.(『고려묘지명집성』, 민중유묘지명)

위의 사료 B-①을 보면 太子府나 王妃, 그리고 諸王子가 府를 세울 경우 반드시 요속을 갖추는데, 그 규정을 보면 충렬왕 때 지유와 행수가 각각 2인씩, 견룡 4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여기서 지유와 행수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견룡지유와 견룡행수인지, 아니면 각 부에 소속되어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그냥 指諭와 行首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기록의 지유와 행수 각 2인은 아마도 좌지유와 우지유, 좌행수와 우행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사』 72 여복지 의례 규정을 보면 국왕의 행차 시에 견룡, 중금, 도지, 백갑군 등이 호종하는데 각각 지유와 행수가 좌우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 볼 때 府에는 지유와 행수가 각각 좌·우 2명씩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B-②의 宋有仁의 경우는 그의 아버지가 인종 때 이자겸의 난에서 공을 세운 까닭으로 散員에 임명되었다가 태자부지유가 되었다고 한다. 그가 태자부의 견룡지유였는지 아니면 그냥 태자부의 지유였는지 정확하지 않다. B-①의 규정을 미루어 본다면 태자부의 그냥 지유였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런데 B-③의 사료에서 추밀원부사 조원정이 동궁견룡지유의 자리가 비자 자신의 아들을 보임시키기 위하여 왕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다. 여기서는 태자부지유라고 하지 않고 동궁견룡지유라고 하여 견룡군의 지유임을 정확히 밝혀 부르고 있다. B-④에서는 김취려가 태자부견룡이 되었다가 오장(별장)이 된 후 몇 년 뒤에 다시 견룡행수가 되었다고 한다. 이 경우도 ‘행수’라고만 하지 않고 ‘견룡행수’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府에는 그냥 행수직도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사료 B-⑤에서 공민왕이 보우를 위해 圓融府를 설치했을 때도 지유와 행수의 관속을 두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꼭 견룡군이나 다른 금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지유와 행수를 두었다고만 하였다. 따라서 府에는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府의 指諭와 行首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B-⑥의 사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충렬왕이 제국공주를 위해 膺善府를 세웠을 때 민종유가 견룡행수에 임명되었다가 좌우위별장이 된 이후 右指諭로 전임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견룡군의 行首일 경우 명확히 牽龍行首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지유에 임명되었을 때는 어느 지유인지 소속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견룡행수의 경우를 미루어 볼 때 그가 견룡군으로서 우지유에 임명되었다면 右牽龍指諭라고 표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右指諭’라고만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응선부의 그냥 지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右指諭라고 한데서 미루어 보아 左指諭도 있었을 것이며, 이에 2명의 지유가 膺善府에 배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指諭와 行首는 禁軍과 왕자부와 왕비부 등 이외에 다른 조직에도

설치되어 있었다. 『고려사』 권81 병지1 병제에서는 고려 병제를 2군·6위, 제부, 별호제반, 5군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호제반과 전시편제인 5군에 指諭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별호제반 즉 별무반을 구성하던 부대로서 기병이었던 神騎班에는 都領과 指諭가 설치되어 있었다. 실례로 신종 2년 최충헌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이적중이 김준거를 몰래 끌어 들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의 직책이 神騎指諭였다.<sup>17)</sup> 신보반에도 도령과 지유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궁, 정노, 석투, 대각, 철수, 발화, 도탕, 강노반에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 별무반과 5군 편제에서 지유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행수는 보이지 않는다. 행수의 직이 없었던 이유는 갑자기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아마도 단위부대의 규모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참고로 2군 6위의 중앙군에는 指諭와 行首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지유와 행수가 설치된 조직은 대체로 특수단위부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禁軍이 견룡, 중금, 도지, 백갑 등은 『고려사』 권76 지 26 여복 의위조에 보면 견룡반, 중금반, 도지반, 백갑반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班’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한 都領과 指諭가 설치된 별무반의 구성부대들도 신기반, 신보반, 경궁반, 정노반, 석투반, 대각반, 철수반, 강노반, 도탕반, 사궁반, 발화반 등 ‘班’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이는 금군인 견룡반, 중금반, 도지반, 백갑반 등과 같은 편제단위이다. 그런데 2군 6위의 중앙군은 ‘班’으로 편제되지 않았으며 규모에 따라 ‘衛’-‘領’-(?)-‘伍’-‘隊’ 등으로 위계적으로 짜여졌다.<sup>18)</sup> 그리고 지휘체계도 2군 6위의 중앙군은 上將軍-大將軍-將軍-中郎將-郎將-別將-散員-校尉-隊正으로 이어지는 누층적인 지휘

16) 일람표는 이기백·김용선, 2011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71쪽 참고.

17) 『고려사』 권129, 열전42 최충헌.

18) 부대조직 단위는 이기백의 「고려 경군고」,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68, 74쪽을 참고.

계통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금군은 지유-행수로 이어지는 지휘계통, 그리고 別武班의 구성부대들은 도령-지유로 이어지는 체계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중앙군과 달리 규모면에서 훨씬 적었으며, 특별히 독립적인 단위부대로 운용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行首와 指諭는 衛國抄猛班에도 설치되어 있었다. 위국초맹반은 명종 5년 11월에 조위총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가 많이 동원되어 호위 군졸이 부족해지자 400명을 추가 선발하여 별도로 조직한 부대였다.<sup>19)</sup> 실제로 위국초맹반의 行首 이돈작과 김입성은 조위총의 잔적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한 적이 있었다.<sup>20)</sup> 이 실례를 통해서 위국초맹반에 행수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行首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상위직인 指諭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別武班의 신기군에 指諭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서 보아 신기군에서 가려 뽑았다고 생각되는 신기초맹반에도 역시 지유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잘못이 없을 것이다. 위국초맹반이나 신기초맹반처럼 정규조직이외에 특별히 별도로 만든 부대에는 行首와 指諭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위국초맹반도 견룡반, 중금반, 도지반, 별무반처럼 ‘班’으로 편제되어 있었던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의종이 유시사건을 계기로 府兵을 모아놓고 별도로 가려 뽑아 內巡檢軍을 조직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실제로 內巡檢軍 指諭의 사례가 보이고 있어 참고된다.<sup>21)</sup>

최우가 만들었던 야별초에도 指諭가 설치되어 있었다. 夜別抄는 최우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음을 걱정하여 용사를 모아 매일 밤 순행케 하여 폭력을 금하게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름을 야별초라고

19) 明宗五年十一月 時因西征 衛卒乏少 加發四百人 號衛國抄猛班 皆持劒戟 環衛毬庭 (『고려사』 권82, 병2 속위)

20) 戊午 遣抄猛班行首 李頓綽·金立成 討西賊(『고려사』 권19, 명종 7년 7월).

21) 『고려사』 권100, 열전13 두경승.

하였다고 한다.<sup>22)</sup> 야별초지유의 실례로서 강화천도를 반대하였던 김세충을 들 수 있다. 그는 별초지유로서 개경이 태조 이래 200여 년간 지켜 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버리고 천도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 밖에 야별초지유의 사례로 몽고군과의 전투에서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던 야별초지유 이임수와 박인걸을 찾을 수 있으며,<sup>23)</sup> 지유 박천부가 별초병을 거느리고 고성과 간성 등지에서 동진군과 싸웠던 경우도 있었다.<sup>24)</sup> 또한 몽고군의 척후기병과 전주성 남쪽의 반석역에서 전투를 벌였던 별초지유李柱의 사례도 여기에 해당된다.<sup>25)</sup> 이 밖에 별초지유의 사례는 많이 찾아진다. 그러나 야별초행수의 사례를 찾을 수 없어 行首가 야별초에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아마 지유 밑에 행수가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논의들을 잠시 종합해 보면, 지유와 행수는 2군 6위의 중앙군 이외에 별도로 조직된 금군, 별무반, 초맹반, 야별초 등에서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군 6위의 중앙군의 허설화로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되자<sup>26)</sup> 주요 기능에 따른 별도의 군사조직을 만들면서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紫門의 수비를 책임지는 직책으로 생각되는 紫門指諭가 있었다. 紫門은 국왕이 주로 활동하는 궁전의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27)</sup> 궁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으며 그 안에 들어가서는 궁궐로

22) 『고려사』 권81, 병지1 병제 원종 11년 5월초.

23) 『고려사』 권23, 고종 23년 8월.

24) 辛卯 指諭朴天府率別抄兵 與東眞戰于高城·杆城 皆破之(『고려사』 권23, 고종 36년 9월).

25) 是月 蒙兵候騎三百餘 至全州城南班石驛 別抄指諭李柱 擊殺過半 獲馬二十四(『고려사』 권24, 고종 40년 8월).

26) 김당택, 앞의 논문, 1983, 260~262쪽.

27) 『고려도경』 권6, 궁전 2 長齡殿조에 의하면 건덕전 동쪽에 자문이 있다고 하였다. 乾德殿은 정전이 會慶殿 서북 방향에 있다고 하므로 紫門이 궁전으로 통하는 성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387쪽 주123 참고).

통하여 문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왕이 주로 위치하는 궁전으로 통하는 문이 紫門이었다고 생각된다. 공민왕이 기철과 노책, 권겸 일당을 제거하기 위해 밀직 강중경, 대호군 목인길 등으로 하여금 장사를 매복 시켰다가 불의에 공격하였는데 권겸이 도망가자 추격하여 紫門에 이르러 죽이니 궁문에 피가 낭자하였다고 한다.<sup>28)</sup> 여기서 紫門이 궁문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사』 83, 병지 37, 위숙군조에 의하면 선인전에 東紫門과 南紫門이 있는데 동자문에는 문을 지키는 장수가 대장군 1명, 장군 1명, 시위는 중랑장 2명이라고 하고, 남자문은 중랑장 1명, 가차장상 1명, 南紫門의 末門은 장상 1명이 지킨다고 되어있다. 그 밖에 광화문 등 나머지 城門에는 장교나 산직장상, 감문위군 등이 배치되어 있다. 동자문과 남자문에 배치된 고위무관이 그 밖의 문에 배치된 군관과 큰 차이가 있었던 데에서 紫門의 중요성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紫門은 동자문 남자문 이외에 內紫門도 있었다. 『고려사』 권83 병지 37, 위숙군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려사』 권64, 예지6 흥례 태묘에 부제하는 의식에 보면 “승선·중방·비신장군·지유·내시·다방이 內紫門의 계단 아래에 서열대로 서면, 집례는 상찬과 합문지후를 시켜 일산과 부채를 가져다 외정에 늘어놓게 한다”고 하였다.<sup>29)</sup> 여기서 내자문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동·서자문을 통과하여 궁전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있던 紫門을 內紫門이라고 한 것 같다.

자문의 중요성 때문인지 다른 문과 달리 자문에는 각별히 자문지유를 설치하였다. 이는 국왕의 近侍와 관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료상에 “대궐의 中禁은 옷을 입고 좌우로 나누어 서고, 지유·견룡은 紫門의 계단 위에 서도록 한다”고 하였다. 지유가 내자문의 계단 아래 선다든가 指諭와 牽龍이 자문의 계단 위에 선다는 기록을 통해서

28) 『고려사』 권131, 열전44 기철.

29) 『고려사』 권64, 예6 흥례 태묘에 부제하는 의식.

볼 때 여기서 지유는 紫門指諭였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자문지유에 임명된 사례도 있다. 고종 16년 1월에 김희제의 사위였던 鄭相이 壽德宮里에 이르러 里門이 닫혀있자 열쇠 관리하는 자가 늦게 온다고 문틈으로 활을 쏘아 죽인 사건이 있었다. 이때 법관들이 김희제의 청탁을 받고 죄를 묻지 않자 낭중 李廷翹만이 처벌을 고집하였다. 최우가 李廷翹이 법을 잘 준수한 것을 가상히 여겨 자문지유로 임명하였다.<sup>30)</sup> 또한 고종 14년 11월에 낭장 金利生이 일찍이 북계에서 병사들을 거느리고 화주성을 잘 방어한 공훈으로 자문지유에 임명되기도 하였다.<sup>31)</sup>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자문지유는 특별한 공훈이 있는 경우에 임명하는 자리로서 그 만큼 중요하거나 명예로운 직책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무기를 제조하는 軍器監에도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어 있었다. 『고려사』 80, 식화3 녹봉조의 여러 衙門의 工匠에 대한 별사 규정 가운데 군기감을 보면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유와 행수가 나와 있다.<sup>32)</sup>

구분	직책	수량	구분	직책	수량
①	皮甲匠	指諭 1명	③	漆匠	左右行首校尉 2명
	牟匠	指諭 1명		鍊匠	左右行首 2명
	和匠	指諭 1명		白甲行首大匠	1명
②	皮甲匠	行首·指諭·副承旨 1명	④	長刀行首副匠	1명
	牟匠	行首·宣節校尉 1명		弩筒副匠	1명
	和匠	行首 校尉 1명		旗畫業	行首校尉 1명
	白甲匠	行首 副尉 1명	⑤	箭匠	左右行首校尉 2명
	長刀匠	行首 陪戎副尉 1명		箭頭匠	行首副尉 1명
	角弓匠	陪戎校尉 2명	⑥	皮匠	指諭校尉 1명
		行首大匠		1명	

30)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16년 1월.

31) 『고려사』 권22, 고종 14년 11월.

32) 『고려사』 권80, 지 34 食貨3 祿俸 諸衙門 工匠別賜條.

위의 표를 보면 피갑장, 모장, 화장의 지유에게는 米 10석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피갑장, 모장, 화장, 백갑장, 장도장, 각궁장 등에게는 米 7석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밖의 공장 등에게 미와 도를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먼저 ①의 피갑장, 모장, 화장의 지유는 10석이고, ②의 피갑장, 모장, 화장, 백갑장, 장도장 등의 행수는 미 7석을 받고 있다. 여기서 피갑장, 모장, 화장에 지유와 행수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유가 행수보다 상위 직책으로 더 많은 별사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中尙署, 掌冶署, 都校署, 尙衣局, 雜織署, 掖庭局, 尙乘局 등의 아문 소속된 공장들도 지유와 행수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장들에게도 지유와 행수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공장들이 단독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단위조직을 이루어 움직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나름 조직적인 지휘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 3. 指諭와 行首의 기능과 임무

指諭와 行首 가운데 지유가 상위 직책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김취려가 태자부견룡이 되었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견룡행수에 임명되었고 이후 지유에 이르렀다고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sup>33)</sup> 문장필의 경우도 그가 인종 때 견룡반으로 동궁을 시위하였으며, 散員을 거쳐 郎將으로 승진한 뒤, 명종이 즉위하자 중랑장으로 발탁되었다가 御牽龍 行首가 되었다고 한다.<sup>34)</sup> 그리고 얼마 안돼 왕태자부지유로 옮겼다고

33) 본문의 사료 B-④ 참고.

하는데, 여기서 견룡→어견룡행수→왕태자부지유로 승진하는 과정을 통해 지유가 행수의 상위직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분희가 원종의 총애를 얻어 행수와 지유를 거쳐 장군에 임명되었다고 하는데,<sup>35)</sup> 이 사례를 통해서도 지유가 행수의 상위 직책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의 사료에

C-5월 정유 왕이 指諭 于光胤·白任至, 行首 李冠夫·宋群秀·慶大升, 牽龍車若松 등에게 명하여 打毬를 하도록 하고, 능견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고려사』 권19, 명종 4년 5월)

라고 하여 지유가 행수보다 높은 관직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서술 순서를 보면 指諭 우광윤·백임지, 行首 이관부·송군수·경대승, 牽龍 차약송으로 기록하고 있다. 차약송이 그냥 견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 견룡군이었을 것이다. 우광윤과 백임지가 그냥 지유라고만 하고, 이관부와 송군수는 행수라고만 하였다. 문맥상으로 볼 때 견룡지유와 견룡행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지유와 행수의 임무에 대하여 『고려사』 병지나 백관지 등에 구체적인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 딱히 한정하여 정의할 수 없다. 그래서 지유와 행수의 직책을 역임한 인물들의 활동을 통해 그 직무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지유와 행수의 기본적인 임무의 성격은 국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채인규는 16세 때 儀仗府 산원에 임명되었다가 몇 년이 안 되어 行首와 指諭로써 御殿에서 가까이 모신 것이 두 번에 이른다고 한다.<sup>36)</sup> 그가 어떤 조직의 행수와 지유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임금과 가까운 위치에서 국왕의 신변을 시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의장부

34) 김용선 역주, 「문장필 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상)』, 한림대 출판부, 2012, 416쪽.

35) 『고려사』 권123, 열전 37 이분희.

36) 年補十六 試除儀仗府散員 不數年 而或以行首·指諭昵侍於御殿者 至再(김용선 편, 『고려묘지명집성』, 채인규묘지명, 416쪽)



산원에 임명되었다가 행수와 지유를 역임하였다는 점에서 의장부의 그것을 지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의장부에도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채인규 이외에도 평장사를 지낸 채송년은 御殿行首로서 낭장에 임명되었던 적이 있다.<sup>37)</sup> 별도로 어전행수라고 한 점에서 볼 때 견룡이나 기타 금군 소속의 행수 이외에 어전에서 활동하던 별도의 어전행수나 지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인규나 채송년이 어전에서 행수와 지유로써 모셨다는 것은 어전행수와 어전지유로 그렇게 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指諭와 行首가 임금과 가까운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임은 조준의 경우에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민왕이 수덕궁에 있다가 조준이 책을 끼고 궁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기특하게 여겨 집안 내력을 물은 뒤 보마배지유에 소속시켰다고 하였다.<sup>38)</sup> 공민왕이 조준을 특별하게 여겨 가까이 두고자 보마배지유에 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사』 권72 지26 여복 관복조에 대한 규정 속에 지유와 행수를 內侍와 茶房과 함께 나란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볼 때 국왕의 시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책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sup>39)</sup>

指諭와 行首는 숙위의 임무도 수행하였다. 원종 때 趙忭이 行首로서 숙위한 일이 있었다. 그가 하루는 초저녁에 입직을 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문이 이미 닫힌 상태였다. 그러자 원종이 문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신하된 자가 문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는 입직을 하지 않은 이유로 有司의 탄핵을 받았다.<sup>40)</sup> 이 사례를 미루어 볼 때 行首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궁궐에서 입직 서는 일이

37) 蔡松年 東州平康縣人 以御殿行首 拜郎將 久不改銜(『高麗史』 권102, 열전 15 채송년).

38) 『고려사』 권118, 열전 31 조준.

39) 『고려사』 권72, 지26 여복 관복.

40) 『고려사』 권103, 열전 16 조충 부 조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임금이 문틈으로 그를 불렀다는 점에서 御殿에서 숙위를 섰음도 알 수 있다. 앞서 채인규가 어전행수로 임명되었다고 했는데, 조변 역시 어전행수로서 어전에서 숙위의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이해된다. 지유 역시 숙위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왕궁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대장군 李景伯과 指諭 文公을 죽이자 궁궐 안이 떠들썩하고 왕이 몹시 놀랐다고 한다.<sup>41)</sup> 여기서 지유 문공려가 왕이 있던 궁궐 안의 내전에서 숙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문공려는 御殿指諭였다고 생각된다.

行首의 임무를 이해하는데 있어 주목되는 것은 견룡행수였던 이의방과 이고의 역할이었다. 그들이 보현원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지를 속여 순검군을 불러 모아 지휘하였다.<sup>42)</sup> 이 점을 주목해 보면 王旨가 있을 경우는 견룡행수가 순검군을 지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견룡지유가 있었을 것이나 직접적인 병력 지휘는 견룡행수가 담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sup>43)</sup> 西南京을 순행하고 돌아오는 衛仗의 규정을 보면 견룡군의 경우 指諭는 수행하지 않고 行首 2명이 견룡반 20명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sup>44)</sup> 이러한 점을 참고해 볼 때 의종이 보현원에 행차했을 때도 李義方과 李高 2명의 牽龍行首가 현장을 수행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견룡행수인 이의방과 이고가 휘하의 견룡군들을 통해서 각각 순검군들을 지휘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行首는 현장에서 실 병력의 작전을 지휘하는 군사행동을

41) 『고려사』 권100, 열전 13 경대승.

42) 『고려사』 권19, 의종 24년 8월.

43) 보현원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당시 한뢰가 왕의 옷을 잡고 어상에 숨어 나오지 않자 이고가 칼을 빼어 들고 위협하여 끌어내 죽였는데, 이때 지유 김석재가 이의방에게 이고가 감히 어전에서 칼을 빼어드느냐고 힐난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지유 김석재가 견룡지유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지유가 현장에 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4) 『고려사』 권72, 지 26 여복 儀衛 衛仗.

담당했던 것으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다른 예로 고종 19년 7월 어사대의 卑隸였던 李通이 경기의 초적과 성안의 노예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이때 강도정부는 3군을 편성하여 강 건너 반군을 공격하여 대패시키는 한편, 견룡행수 별장 李甫와 龔師綏에게 야별초를 거느리고 먼저 개성을 공격하게 하였다.<sup>45)</sup> 기동부대로 파견된 이보가 성의 문지기를 속여 문을 열고 들어가서 李通 등을 제거한 뒤 출입로를 확보하자 그 후 3군이 계속해서 개성에 이르렀다고 한다. 견룡행수였던 이보와 정복수가 야별초를 거느렸다는 점에서 일선 작전에서 군사를 지휘하여 싸우는 역할을 행수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보와 정복수가 견룡이었기 때문에 야별초를 거느렸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行首였기 때문에 야별초를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견룡행수인 이고와 이의방이 순검군을 지휘했던 것처럼 이보와 정복수가 야별초를 이끌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3군이 개성에 이르기 전에 먼저 이르러 궁문의 개방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특수부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부대는 대규모 병력이기보다는 소규모 편제단위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行首는 이러한 소규모 단위부대의 작전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직책으로 여겨진다. 비슷한 사례로 명종 7년 7월에 초맹반의 행수인 李頤綽과 金立成을 보내 서경의 잔적을 토벌케 한 적이 있다.<sup>46)</sup> 초맹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목적 하에서 별도로 가려 뽑아 만든 부대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도 夜別抄처럼 중앙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특수부대를 行首가 지휘하고 있었다.

指諭도 역시 行首와 마찬가지로 군사들을 지휘하였다. 야별초 지휘들이 군사들을 지휘하여 군사작전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앞서

45)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19년 7월.

46) 戊午 遣抄猛班行首李頤綽·金立成 討西賊(『고려사』 권19, 명종 7년 7월).

이야기 했듯이 야별초는 2군 6위의 중앙군과 달리 최우가 별도로 조직했던 군사조직이었다. 야별초에는 지휘조직으로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夜別抄都領과 夜別抄指諭이다. 즉 都領-指諭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고종 22년 8월에 崔瑀의 도방원이며 야별초 도령이었던 李裕貞이 적과 싸우겠다고 하자 병사 160인을 주어 파견한 경우가 있다.<sup>47)</sup> 전시편제였던 5軍에는 都領과 함께 指諭가 설치되어 있었다.<sup>48)</sup> 5군은 중군, 전군, 후군, 좌군, 우군을 말하는 것으로 각 군에 편제되어 있던 특수부대에 도령과 지유가 배치되어 있었다. 都領이 指諭의 상급 지휘관으로서 전투편제를 지휘하고 있었다.<sup>49)</sup> 야별초도 都領 밑에 指諭가 편제되는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sup>50)</sup> 도령과 지유가 편제되었던 5군이 전투부대 편제였다는 점에서 볼 때 야별초를 이끄는 指諭도 전투 등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정규전보다는 소규모 단위작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투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都領은 지유의 상위직책으로 별무반을 구성하던 각 특수부대의 최고 책임자였다.<sup>51)</sup> 정노반, 강노반, 석투반, 발화반 등은 도령이 최고

47) 『고려사』 권23, 고종 22년 8월.

48) 김갑동은 都領이 시기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면서 국초에는 여진인들에게 부여되었다가 고려가 여진정벌을 위해 별무반을 편성하면서 양계 지방의 주현군의 군사지휘관으로서 도령이 역할을 하였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고종대 이후로 오면서 2군 6위의 정규군 외에 따로 설치한 부대의 지휘관에게도 도령이 부여되었다고 설명하였다(김갑동, 「고려시대의 도령」, 『한국중세사연구』 3, 1996, 72~77쪽).

49) 김갑동, 앞의 논문, 1996, 85쪽.

50) 도령-지유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는 여기에 임명되는 무반직이 같다고 하더라도, 즉 도령낭장, 지유낭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직책의 역할 면에서 도령이 상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신의군도령낭장 박희실과 신의군지유낭장 이연소가 김인준, 류경 등과 최의를 제거하려고 모의하였는데, 여기서 계급은 같지만 도령이 지유보다 상급직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51) 박옥걸은 도령을 관직이 아니라 하나의 신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기별로 도령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그것이 고려 후기로 오면서 북방의 양계는 물론 중앙의 야별초, 신의군 등 특수부대, 남의 노군이 방어군과 같이 비정규군 체제에도 적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도령의 개념을 관직이

책임자로 부대를 이끌었다고 생각되며, 지유는 그 밑에서 임무를 맡아보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별무반을 구성하던 각 부대에는 行首가 없었는데, 이는 작전하는 단위부대의 규모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별무반의 구성부대들은 임무수행 단위규모가 都領-指諭까지만 편성되었고, 견룡군·중금군·내순검군·도지군 등 금군의 그것은 지유-행수의 편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指諭와 行首의 임무를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유와 행수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던 조직의 성격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즉, 工匠들에게도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군사지휘권과는 관련이 없다. 아마도 공장의 지유와 행수들은 공장의 단위조직, 예를 들자면 백갑장 지유라면 일정한 숫자로 이루어진 백갑장들의 단위조직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뜻이다.

#### 4. 指諭와 行首의 임명

指諭와 行首는 단위조직을 책임지는 직책이었다. 또한 대부분이 工匠을 제외하고는 금군이나, 별무반, 야별초, 초맹반 등 중앙군과 구별되는 군사분야에 설치되어 있었다. 여러 아문에 소속된 공장에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왕과 관련이 깊거나 정권담당자의 핵심 군사력이거나 특수한 군사조직에 주로 설치되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용력이 있는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를 참고해 보자.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박옥걸, 「고려 도령에 관한 재검토」, 『사학연구』58·59합, 1999).

D-나주목사 이진수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궁궐에서의 시위는 신체에서의 사지와 같으니 인의와 이치를 아는 자가 최고이며 용감한 자가 다음이다.(『고려사』 권82, 병지 2 숙위)

위의 기록을 보면 궁궐에서의 시위는 신체에서의 사지와 같다고 하였다. 사지 즉 손과 발은 머리와 몸통을 보호하는데 쓰이며, 사지가 제 기능을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궁궐에서의 시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국왕의 신변을 지키고 왕권을 보위하는 일이 바로 시위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지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자리에 인원을 선발할 때 인의와 이치를 아는 자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의와 이치를 단순히 유교의 도덕론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시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심과 신뢰일 것이다. 국왕의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담보된 뒤에야 용감함과 용력 등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금군이나 야별초 등의 지유와 행수직에는 국왕이나 무인집정이 신뢰하는 인물들이 임명되었다.<sup>52)</sup> 물론 모든 지유와 행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指諭와 行首가 정치권력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들이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① 宋義의 아들은 宋和이다. 송의가 고려를 배반하고 도망가려고 하니, 송화가 울면서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송화가> 가는 도중에 도망하여 되돌아오니, 송의가 頭輦哥에게 보고하고 쫓아가 다시 되돌리게 하였다. 송화는 어려서부터 騎馬擊毬를 익혔는데, 격구 막대기를 다루는 솜씨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절묘하였다. 황제가 매우 감탄하며 상을 주고,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 를, “귀신이 돕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幻術이다.”라고 하였다.……송의가 가난하고 곤궁에 처해 의지할 바를 잃게 되자 송화가 더욱 자기 아버지를

52) 김수미는 강화천도 당시 상황을 분석하면서 최씨정권이 야별초를 장악하기 위해 지유에 자신의 심복들을 배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어 참고된다(김수미, 「고려무인정권기의 야별초」, 『고려무인정권연구』, 서강대 출판부, 1995, 151~152쪽).

원망하였으며, 황제에게 요청하여 아내를 데리고 고려로 귀국하였다. 元宗이 기뻐하며 발탁해 御牽龍行首로 삼았다. 中禁指諭까지 되었으나, 그의 어머니가 천하였기 때문에 관직은 3품으로 한정되었다. (『고려사』 권124, 열전37 윤수 부 송화)

-② 李汾禧는 塩州 사람이다. 아버지는 大將軍 李松으로, 崔怡의 門客이 되었다. 이분희와 동생 李櫛은 함께 金俊을 섬겨 金俊의 심복이 되었다. 이분희는 行首와 指諭를 거쳐 將軍에 임명되었으며, 元宗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고려사』 권123, 열전37 이분희)

-③ 명종 초에 다시 散員으로 옮겼는데 李義方이 그의 이름을 듣고 불러다가 內巡檢軍指諭로 삼았다. (『고려사』 권100, 열전13 두경승)

-④ 宋吉儒는 성품이 탐욕스럽고 잔혹하였으며, 말을 잘 하였으나 아침을 잘 했다. 卒伍 출신으로 고종 때 최항을 아침으로 섬겨 夜別抄指諭가 되었다. (『고려사』 권122, 열전35 송길유)

-⑤ 李宜風은 본래 원나라 사람으로,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 했다. 忠肅王의 嬖臣이 되어 아침저녁으로 궁궐 내에 출입하였고, 15세에 散員에 임명되었다. 일찍이 사냥을 나간 왕을 따라갔다가 사슴이 왕의 행차 앞으로 달려가자 화살 하나로 쏘아 넘어뜨리니, 왕이 기뻐하며 別將行首에 임명하였다가 갑자기 뛰어들어 摠部典書에 임명하였으며, 여러 번 승진시켜 密直副使로 삼았다. (『고려사』 권124, 열전 37 최안도 부 이의풍)

-⑥ 郎將 金利生을 紫門指諭로 삼았다. 김이생은 일찍이 北界의 병사들을 이끌고 밤에 和州城에 들어가 성 안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성을 굳게 지켰으며, 또 기습적으로 출병하여 적을 무려 1,100명이나 베었으므로 그 공으로 이 직책을 받았다. (『고려사』 권22, 고종 14년 11월)

위의 기록들을 검토해 보면 임명권자가 지유와 행수의 직책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임명한 것은 조직의 중요성 때문인지 지유와 행수의 직책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지유와 행수의 직책이 금군이 나 야별초 등 국왕이나 무인집정이 매우 중요시 여기는 조직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경우라도 신뢰하는 인물을 임명하였다고 보아도 좋다. 금군은 국왕과 가까운 거리에서 시위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왕의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조직의 지유와 행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종 21년에 벌어졌던 유시사건 당시 그 경호의 책임을 물어 견룡군과 순검군의 지유 14인이 유배를 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sup>53)</sup> 또한 고종 17년 9월에 왕이 묘통사에 행차하였는데 이 때 御駕가 절의 문밖에 이르렀을 때 말이 놀라 왕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어사대사 왕유가 견룡행수로서 호가를 근면이 하지 않아서 하옥하려고 하자 어사대부 차척은 단지 견룡 2명만을 하옥하였다.<sup>54)</sup> 이와 같이 국왕의 목숨을 담보하는 시위의 책임을 지유나 행수에게 물었다는 점에서 그 직책의 임명에 충성심과 신뢰성 등이 우선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E-①은 송의의 아들인 송화가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몽고로 도망하자 탈출하여 고려로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결국 아버지가 두렁가에 보고하여 몽고로 가게 되었다. 송화는 어려서부터 기마격구를 익혀 격구 막대를 다루는 솜씨가 원의 황제가 幻術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났다. 그가 황제를 설득하여 고려로 돌아오자 원종이 기뻐서 어견룡행수로 삼았고 이후 중금지유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송화의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원종의 마음을 얻는데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되며, 여러 관직 중에 어견룡행수와 중금지유에 이르게 한 것은 그의 충성심뿐만 아니라 그의 뛰어난 격구실력, 즉 무예실력 때문이기도 하였다고 생각된다. 국왕의 시변을 호위하는 금군의 행수와 지유에는 이와 같은 인물들이 임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53) 王如奉恩寺 夜還 至觀風樓 敦中馬素不調 聞鉦鼓聲益驚 突觸一騎士 矢房矢躍出 落輦傍 敦中不遑自首 王驚愕 以爲流矢 以儀衛繖扇擁輦 疾馳還宮 宮城戒嚴 命有司榜街市購捕 逮者甚衆 王疑大寧侯暉家僮羅彥等所爲 酷加鞫問 誣服 遂斬之 又以禁衛不謹 流牽龍·巡檢指諭等十四人(『고려사』 권98, 열전11 김부식 부 김돈중)

54) 『고려사』 권22, 고종 17년 9월.



E-②에 보이는 이분희는 염주사람으로 그의 아버지가 죄이의 문객이었다. 이분희와 그의 동생은 죄이를 제거하고 무인집정이 된 김준의 심복이었다. 이분희는 행수와 지유를 거쳐 장군의 지위에 올랐으며, 원종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행수와 지유를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인집정인 김준의 신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원종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지유와 행수 직에 있으면서 임금을 시위하는 일을 충실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E-③이의방이 두경승의 명성을 듣고 불러다가 內巡檢軍指諭에 임명한 것은 내순검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긴 것이다. 내순검군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앞서 설명한 의종 21년에 발생했던 유시사건을 계기로 순검군을 대신하여 부병 가운데 정예한 군사들을 선발하여 새로 만든 시위부대였다. 그들은 항상 자색 옷을 입고 칼을 지닌 채 눈비도 피하지 않고 밤이면 순찰하여 새벽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여기서 그 부대의 충성심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의 지유에 그가 신뢰하던 두경승을 선발한 것이다. 이처럼 무신란으로 권력이 무인에게 돌아가자 금군 같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위부대나 핵심 군사력의 행수나 지유에 무인집정이 직접 선발하기도 하였다.

E-④는 송길유가 당시 최씨정권의 집정자인 최항을 아첨으로 섬겨서 야별초지유가 되었다고 한다. 그가 야별초의 지휘관인 지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최항의 신뢰 때문이었다. 여기서 아첨이라고 하지만 최항에게는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을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최씨정권의 핵심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야별초의 지휘를 책임지는 指諭에 그를 임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E-⑤는 이의풍이 원래는 원나라 사람인데, 활쏘기와 말타기는 무예에 뛰어났다. 그는 충숙왕이 총애하는 신하였으며, 왕을 따라 사냥을 나갔다가 왕을 향해 뛰어오는 사슴을 활로 쏘아 맞춘 일로 왕이 기뻐하며 행수로 임명하였다고 한다. 그가 별장으로서 행수직에 임명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왕의 총애 때문이며, 또한 활쏘기와 말타기 등 뛰어난 무사적 재질도 그 이유였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E-⑥은 낭장 金利生이 紫門指諭로 임명된 사실인데, 그는 북계의 병사를 이끌고 화주성에 들어가 성민들과 함께 성을 지키던 중 기습적으로 출격하여 적을 1,100명이나 베었으며, 그 공으로 자문지유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그가 자문지유가 된 것은 1,100의 적을 죽일 정도로 무예와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이 국왕이 활동하는 궁전으로 직결되는 자문을 경비하는 자문의 책임자인 지유에 임명될 수 있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국왕과 지근거리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지유나 행수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임명되고 싶어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사료는 이와 관련하여 참고될 것이다.

F- 낭장 崔宗彦은 공주의 유모에게 의뢰하여 견룡행수가 되었다. 周鼎이 낭장 金禧로써 그를 대신하였다. (김)희의 형인 儀와 曹淳도 또한 낭장으로써 행수가 되었으며 모두 주정의 姻婭였다. 이 때 一門에 三行首라고 불리었다. (『고려사』 권104, 열전 7 김주정)

F 사료의 낭장 최종언이 공주의 유모에게 부탁하여 견룡행수가 되었으나 (김)주정이 자신의 姻婭였던 金禧로서 대신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인척인 金儀와 曹淳까지 行首가 되게 하였는데, 당시 부르기를 한 가문에 3行首라고 하였다고 한다. 한 가문에 3명의 행수가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만큼 행수 직은 당시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指諭는 나와 있지 않지만 행수의 상위 직책이었기 때문에 行首 못지않은 선망의 직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유와 행수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앞서 든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유와 행수에는 주로 낭장 이하의 중하급 무관들이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군 이상이 지유와 행수의 직을 역임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려사』 권72, 여복지 의위조의 서·남경을 순행할 때의 衛仗에 관한 설명이 참고된다.

G- 巡檢左右府에는 영도장이 2명(방각을 쓰고 자의를 입으며 칼을 들고 기를 들며 말을 탄다), 指諭가 6명(郎將과 別將, 散員이 交差하며 의복과 차고 있는 것은 위와 같다), 군사는 150명이다(靑紫衣를 입고 兵仗器를 든다). (『고려사』 권72, 지26 여복1 의위조)

위의 G기록을 보면 순검좌우부가 서·남경을 순행할 때의 衛仗에 수행하는데, 그 지휘관을 설명하는 내용에 영도장이 2명이며, 지유가 6명이고, 군사가 150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유 6명을 설명하는 細註에 낭장과 별장, 산원이 교차한다고 하고 있다. 즉 지유에 낭장, 별장, 산원이 교대로 차정된다는 것으로 직유 직에는 낭장이나 별장, 산원이 임명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순검군의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금군인 견룡군, 내순검군, 중금군, 도지금, 백갑군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들었던 사례들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무신란을 주도했던 이의방과 이고가 散員으로서 견룡행수였으며, 杜景升이 이의방에 의해 내순검군 지유에 보임되었을 때 그는 정8품 散員의 무관직에 있었다. 정중부의 사위였던 宋有仁도 散員으로 있다가 태자부의 지유가 되었다. 김취려도 오(별)장이 되었다가 몇 년 안 되어 견룡행수와 어견룡행수를 거쳐 태자부지유에 임명되었다고 한데서도 별장의 무반 품계를 가지고 행수와 지유의 직을 역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들었던 사료 E그룹에 나오는 이의풍과 김이생도 마찬가지였다. 이의풍도 충숙왕에 의해 별장으로서 행수에 임명되었으며, 김이생이

자문지유에 임명되었을 때도 낭장이었다. F 사료의 낭장 최종유와 낭장 김희를 비롯하여 김의, 조순이 모두 낭장으로서 행수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여러 실제 사례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지유와 행수에는 낭장, 별장, 산원 등의 무관직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위나 대정은 지유와 행수에 임명된 사례가 없다.

지유와 행수는 2군 6위의 중앙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직책으로 주로 별무반, 금군, 야별초, 초맹반 등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중앙군이 약화되는 시기에 나타난 부대들로 특수임무들을 수행하는 부대들이었다. 이들의 지휘체계는 도령-지유 또는 지유-행수로 이루어졌다. 지유와 행수가 금군을 지휘하는 직위였기 때문에 정치권력과 가까웠으며, 무반품계는 비교적 높지 않았으나 특수임무를 띤 단위부대의 지휘관으로써 국왕이나 무인집정과 밀접하였다. 이들의 출현이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고려 군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 지유와 행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지유와 행수는 주로 건룡군, 중금군, 도지군, 백갑군, 내순검군 등 금군에 설치된 직책이었다. 그리고 별무반을 구성하던 신기반, 신보반, 도탕반, 강노반, 사궁반, 석투반, 발화반 등의 부대에는 도령과 지유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금군에는 지유와 행수가 편제된 반면 별무반에는 도령과 지유가 설치되어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단위부대의 편성규모에서 오는 차이라고 이해하였다. 지유와 행수는 무반 품직과는 구별되는

보직의 개념이었다. 이들 금군은 그 규모가 중앙군의 편제에 비해 많지 않았다. 금군 이외에도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인 자문에도 경비를 관장하는 자문지유가 설치되었다.

금군은 전룡군, 중금군, 도지군, 백갑군 등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전룡반, 중금반, 도지반, 백갑반으로도 표현되었다. 별무반의 구성부대가 ‘반’으로 편제된 점과 금군의 전룡반, 중금반, 도지반 등이 ‘반’으로 그렇게 된 것은 공통점이었다. 이는 2군 6위의 중앙군 편제와는 달랐던 점이다. 따라서 ‘반’으로 편제된 특수한 임무를 맡은 부대에는 편제 규모에 따라 도령-지유 체계와 지유-행수 체계로 나누었다고 이해하였다. 최우가 만들었던 야별초에도 도령과 지유가 설치되어 있었다. 야별초행수의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어 존재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야별초 역시 2군 6위의 정규군과 구별되어 별도로 만들어진 부대였다. 별초도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도령-지유체계였을 것이다. 별무반이 5군의 전투편제에 편성되어 있었고 도령-지유 편제로 짜여 있었던 점에서 볼 때 야별초도 전투를 위해 조직된 부대였다는 점에서 도령-지유체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 위국초맹반도 조위총의 난에 군사들이 많이 동원되어 시위군졸이 부족하자 400명을 더 선발하여 만들었다. 400명 정도로 만들어진 위국초맹반도 편성이 ‘반’으로 되어 있었으며 위국초맹반 행수가 실제로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아 여기에도 지유와 행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임금을 시위하는 역할을 한 보마배에도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밖에 군사 조직과 관계없는 공장 조직에도 지유와 행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소속 공장 조직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유와 행수가 대부분 금군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서 임금의 시위나 경호책임, 紫門 같은 궁궐문의 경비, 궁왕의 주변에서 직속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한편 비상시나 외침시에 병력을 직접 거느리고 출동하여 군사작전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무신란 당시 이의방, 이고가

전통행수로서 임금의 교지라고 속여 순검군을 지휘한 사실 등에서 군사를 직접 이끌고 작전을 실행하는 임무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인정권시기 최우가 만든 야별초는 도령이나 지유 등이 집정의 명령을 받고 주요 전투에 나가 군사를 이끌고 직접 작전을 펴는 임무를 맡았다.

지유와 행수가 주로 금군과 별무반, 야별초 등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무의 중요성에서 볼 때 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과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금군의 경우는 국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변호위를 맡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한편 별무반이나 야별초 등은 전투에서 특수한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부대들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활쏘기와 말타기 등 무사적 재질도 뛰어나야 했다. 이러한 용력은 당연히 전제되는 조건이었다.

지유와 행수에 임명되는 무반품계를 보면 대부분 장군을 비롯하여 그 이상의 고위 무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대개 낭장, 별장, 산원 등 중하위 무관직자들이 여기에 임명되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대부분의 사례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동일한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도령-지유-행수의 직책에 따라 그 지휘 관계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지유와 행수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살필 수 있었던데 일부나마 만족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다.

[원고투고일: 2016.7.30, 심사수정일: 2016.11.18,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지유(指諭), 행수(行首), 도령(都領), 금군(禁軍), 별무반(別武班), 야별초(夜別抄), 위국초맹반(衛國抄猛班), 반(班), 자문(紫門)

&lt;ABSTRACT&gt;

The research on the military positions,  
“Jiyu” and “Haengsu” in the Goryeo Dynasty

Kim, Nak-Jin

The terminologies ‘Jiyu’ and ‘Haengsu’ were the officer titles specially created for Geum-gun, the royal forces. They were positions rather than military ranks. The position Jiyu was also found in the special forces such as the guard to keep the main gate to the palace security. In addition, there were Jiyu in Byeolmuban and Yabeolcho. Byeolmuban was the special forces established in order to pacify the Yeojin tribes in the northern region. Yabeolcho was originally formed by Choi Woo, the leader of the military regime in the Goryeo Dynasty, to prevent theft cases. It also conducted many things such as the arrest of criminals, violence prevention, jail control, criminal interrogations and VIP protection and so on. None of them were part of the Goryeo's regular forces, I-gun and Yukwi. As most Jiyu and Haengsu belonged to Geum-gun, their main mission was providing security services to the king. Therefore, those who swore their loyalty to the king only were allowed to hold the positions, Jiyu and Haengsu. Most of them were recruited from the middle or low-ranking military officers such as Nangjang, Byeoljang and Sanwon.

Key words : Jiyu, Haengsu, Byeolmuban, Geum-gun, Yabeolcho

